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1
----------	------

발의연월일 : 2016. 9. 6.

발 의 자 : 손금주 · 이동섭 · 김광수
정인화 · 최경환^(국) · 김관영
김삼화 · 채이배 · 송기석
윤영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9호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9. 제8호에 정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 7. (생 략) 8. <u>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u> <u><신 설></u>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u> 9. <u>제8호에 정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u>